

제로 코로나에 발목 잡힌 중국 경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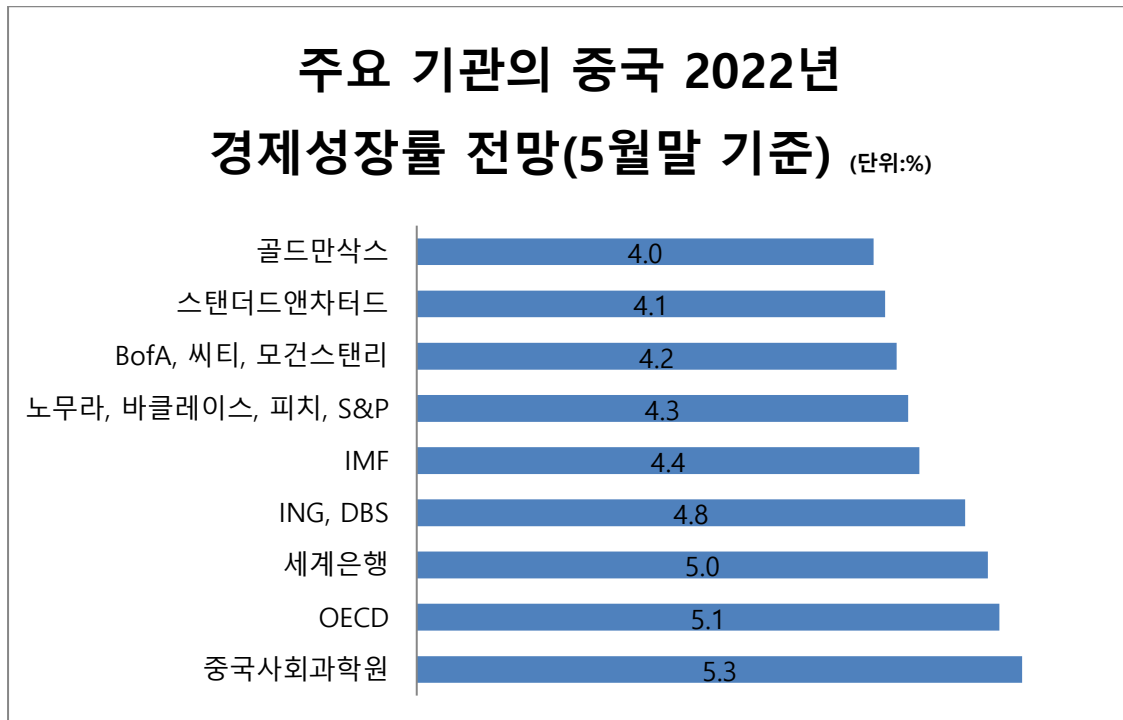
불과 석 달여 전인 2022년 3월, 중국 행정부인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(전인대) 개막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로 5.5%를 제시했다. 당시에 5.5%는 상당히 힘든 목표라는 평가가 많았다. 석 달이 지난 현 시점에서 불가능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. 중국 내부에서조차 2%대 성장이 버거울 것이란 의견이 나올 정도다. 다양한 내외부 변수가 있지만, 중국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은 '제로 코로나'로 대표되는 강도높은 방역 정책이라는 분석이 많다.

◆ 성장률 목표 5.5%는 사실상 불가능

3월부터 코로나 19 오미크론 변이가 중국 전역에 확산했다. 북방의 자동차산업 중심지인 지린성이 가장 먼저 전면 봉쇄에 들어갔다. 이어 '경제수도' 상하이도 3월 28일 단계적 봉쇄에 착수했다. 상하이 봉쇄는 곧 시 전역으로 확대됐다. 중국 반도체와 자동차, 금융 등 주력 산업의 메카인 상하이 봉쇄는 전국적 영향을 줬다. 상하이가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(GDP)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%에 못 미치지만, 상하이를 중심으로 장수성과 저장성을 아우르는 창장삼각주의 GDP 비중은 20%를 넘는다. 이동 통제 조치에 따른 물류 마비가 공급사슬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.

글로벌 기관·기구들은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. 3월 초까지만 해도 중국 금융회사들은 대체로 5~5.5%, 해외 투자은행(IB)들은 4.5~5.0%를 예상했다. 국제통화기금(IMF)은 연초 5.6%에서 최근 4.4%로 깎았다.

최근 나온 전망치를 보면 UBS 가 3.0%, JP 모건이 3.7%를 제시하는 등 3%대 예상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. 골드만삭스(4.0%), 스탠더드앤차터드(4.1%), 씨티그룹(4.2%) 등도 중국의 강력한 통제가 지속되면 성장률 전망을 더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.



쉬젠궈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교수는 올해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인해 1 억 6000 만명의 경제 활동이 영향을 받았으며 18 조위안(약 3400 조원)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. 2020 년 우한 봉쇄 당시 충격의 10 배 이상이다. 그는 "중국의 성장률이 2020 년의 2.3%에도 못 미칠 수 있다"고 우려했다.

◆청년실업 역대 최악

민심과 직결되는 실업률은 2 년여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으며 특히 청년실업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. 소비 위축이 고용 감소와 저축 증가로, 다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.

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16~24 세 도시실업률이 3 월 16%에서 4 월 18.2%로 2.2%포인트 급등했다. 이는 중국이 청년실업률을 별도로 작성, 발표하기 시작한 2018 년 1 월 이후 최고치다. 기존 최고 기록은 2020 년 8 월의 16.8%였다.

중국의 4 월 전체 도시실업률은 6.1%로 전월 5.8%에서 0.3%포인트 올라가 코로나 19 확산 초기인 2020 년 3 월 이후 2 년여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다. 상점, 음식배달, 공유차량 기사 등 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하는 청년층이 봉쇄 피해를 더 크게 봤다는 진단이다.

중국 31 개 주요도시의 실업률도 4 월 6.7%로 2013 년 6 월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. 이 지표는 2 월 5.4%, 3 월 6%에서 가파르게 상승했다. 31 개 주요도시 실업률은 이전까지 6%를 넘은 적이 없었다.

UBS 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수입과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저축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. 이는 올해 하반기까지도 내수 경기 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고용 시장도 부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.

◆경기 부양 나서서 정부

중국 당국은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. 국무원은 올해 감세 규모를 2020 년(2 조 6000 억위안)보다 많은 2 조 6400 억위안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33 개 경제안정화 조치를 내렸다.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인 외국인 자금 유출 확대 우려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했다.

인민은행은 5 월 5 년 만기 대출우대금리(LPR)이 전달보다 0.15%포인트 낮은 연 4.45%로 집계됐다고 5 월 20 일 발표했다. 1 년 만기 LPR 은 전월과 같은 연 3.7%를 유지했다.

중국은 한국처럼 7 일물 환매조건부채권(RP) 금리를 기준금리로 활용하다가 2019 년 8 월부터 LPR 을 기준금리로 쓰고 있다. 명목상으로는 18 개 시중은행의 최우량 고객 대상 대출금리를 취합한 것이지만, 실제로는 인민은행이 1 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(MLF) 금리와 각종 정책 지도를 통해 결정한다. 1 년 만기 LPR 은 일반 대출에, 5 년 만기는 주택담보대출에 기준으로 활용된다.

인민은행은 2020년 4월 이후 20개월 만인 작년 12월 1년 만기 LPR을 0.05%포인트 내렸다. 이어 지난 1월에는 1년 만기를 0.1%포인트, 5년 만기는 0.05%포인트 인하했다.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급격하게 냉각하면서 전체 경기가 하강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.

그 이후 경기 부양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지만 석 달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.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가운데 중국이 금리를 내리면 외국인 이탈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.

중국이 이번에 1년 만기 LPR은 동결하고 5년 만기는 비교적 큰 폭으로 내린 것은 이런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. 0.15%포인트는 그동안 5년 만기 LPR 인하 중 가장 폭이 크다. 2020년 4월이 0.1%포인트였으며 나머지 3회는 0.05%포인트씩이었다.

지난해 하반기 중국 당국의 강도높은 규제에 촉발된 부동산시장 침체는 중국 경기 전반을 냉각시킨 주 요인으로 꼽힌다. 중국의 국내총생산(GDP)에서 부동산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5%를 넘는다.

그러나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. 시장정보업체 중국부동산정보(CRIC)에 따르면 중국 100대 부동산개발업체의 5월 신규 주택 판매 금액은 4546억위안(약 84조 5000억원)으로 작년 5월보다 59.4% 줄었다. 월간 주택판매액 감소율은 지난 1월 39.6%, 2월 47.2%, 3월 58.0%, 4월 58.6%로 계속 악화하고 있다.

베이징=강현우 특파원 hkang@hankyung.com